

4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천지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Comparison of Heaven-Earth Relationships

동학사상의 천지귀신론

귀신(鬼神)의 재해석

동학사상에서 '귀신'은 신명(神明)이 아닌 초월천(天外天)을 의미

- 성리학의 음양작용으로서의 귀신 개념 초월
- 귀신을 초월천의 기화작용으로 재해석 천
- 지가귀신 = 천지는 초월천의 기화작용

"천지역시(天地亦是) 귀신(鬼神)이오 귀신역시(鬼神亦是) 음양(陰陽)인줄 이같이 몰랐으니 경전(經傳)살펴 무엇하며 도(道)와 덕(德)을 몰랐으니 현인군자(賢人君子) 어찌알리"

- 『용담유사』, 「도덕가」

초월천과 기화작용

- 기화작용(氣化作用): 초월천의 지기(至氣)가 천지를 만드는 원리
- 성리학과 차이: 성리학은 음양 작용의 실체적 설명으로서의 귀신을 논했으나, 동학은 초월천을 강조
- 근대성의 시도: 초월천을 통해 성리학을 뛰어넘는 근대성 추구
- 한계점: 신명 개념 미수용으로 유교의 전환을 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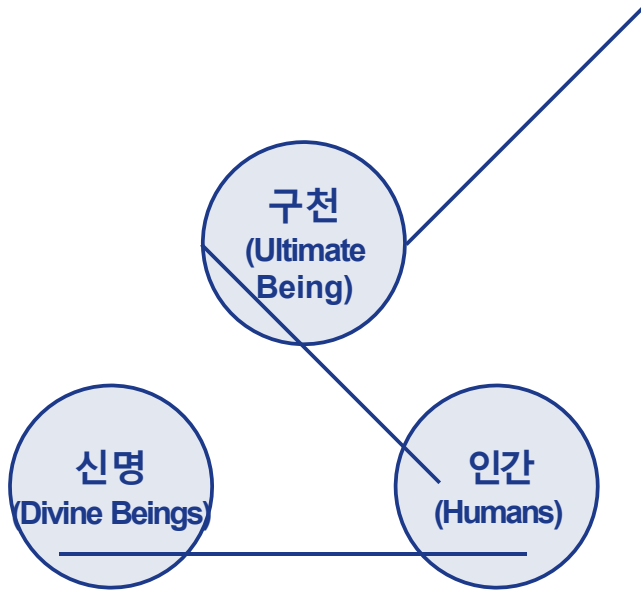
성(誠) 사상의 강조

동학사상은 성경신 사상을 강조하였으나, 유교와 달리 천지의 천이 아닌 천지를 만든 초월천에 대한 성(誠)을 강조

"吾道專而約不用多言義別無他道豈豈成敬信三字"

동학사상은 초월천을 통한 근대성을 추구했으나, 신명 개념을 수용하지 못해 완전한 자생적 근대성에는 도달하지 못함

| 대순사상의 천지성경신론



삼각구도의의의

- ◆ 구천-신명-인간의 소통 강조
- ◆ 동학사상과 달리 신명 개념 적극 수용
- ◆ 신명을 매개로 한 천지간 조화와 질서 확립

성경신(誠敬信)의 의미

성(誠)

창조성,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

경(敬)

공경과 존중, 천지에 대한 예의

신(信)

신뢰와 믿음, 천지운행의 기반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天地)의 은혜(恩惠)이니 성(誠)·경(敬)·신(信)으로써 천지(天地) 보은(報恩)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성경신의 차별성

유교사상	하늘-인간 관계에서의 성(誠) 강조
동학사상	초월천에 대한 성(誠) 강조
대순사상	구천-신명-인간 삼각구도에서의 성경신

도기장존과 상생 개념 분석

동학사상: 도기장존(道氣長存)

- 의미: 도의 기운이 길이 보존됨(사특한 것이 들어오지 못함)
- 특성: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의미 강조
- 강조점: 상극(相克)의 힘, 척왜(斥倭) 중시
- 한계: 진심견수(眞心堅守)의 가치 미흡
"道氣長存邪不入, 世間衆人不可歸" (입춘시)

대순사상: 상생(相生)

- 의미: 해원상생(解怨相生), 만물의 조화로운 생성
- 특성: 구천의 음양오행 운행원리로서 조화 추구
- 강조점: 진심견수(眞心堅守) "福先來"의 원리
- 발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상생 원리 구현
"진심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

상생

음양오행의 원리
구천(九天)에 의한 오행의 조리(調理)

상극

동학사상: 상극의 힘 추구, 기화(氣化)와 척왜 강조 vs 대순사상: 해원상생의 조화, 음양오행의 균형 추구

서양에 대한 인식 차이

동학사상: 서학에 대한 대립적 태도

- 명칭: '동학'이라는 명칭 자체가 '서학'에 대항
- 성격: 서학에 반대하는 자생적 근대성 추구
- 영향: 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기원을 주장
- 특징: 성리학을 넘어서려는 자생적 근대화

동학은 서학과 함께 동양에 재수입되고 중국 근세 도교와 성리학이 종합되며 천시문답이라는 상제의 계시 형태로 성립

대순사상: 포용적 동서양 세계관

- 명칭: '대순'이라는 용어에서 포용의 의미 강조
- 성격: 동서양 상생관계 추구
- 영향: 서양 근대성의 동양적 수용과 발전
- 특징: 음양합덕의 관점에서 동서양 조화 모색

'동유대성인왕동학 서유대성인왕서학'(동쪽에 대성인이 있어 가로되 동학이요, 서쪽에 대성인이 있어 가로되 서학이라 한다)

동학사상: 서양에 대한 경계와 대립 중심 → **대순사상:** 동서양의 음양합덕적 상생 추구

실학과 서학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듯, 조선 후기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이었으나, 대순사상은 마테오 리치 같은 서양 인물을 "천상의 문명을 땅에 전한 인물"로 평가하는 등 더 포용적 관점 제시

| 일본에 대한 관점 비교 및 결론

동학사상의 일본관

- ◆ 적대적 인식: "개같은 왜적놈"
- ◆ 태도: 서양과 일본에 대한 경계심
- ◆ 특징: 척왜(斥倭)를 강조하는 상극의 힘 추구
- ◆ 도기장존(道氣長存): 힘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는 의미
"도기장존 사불입(道氣長存邪不入)"

대순사상의 일본관

- ◆ 해원(解怨):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의 척(慼)을 푸는 관점
- ◆ 상생관점: "일본은 일본 사람이니 말대접이라도 후하게 하라"
- ◆ 특징: 일본해원(日本解冤)은 증산 화천 후 최초 실현된 천지공사
- ◆ 진심견수(眞心堅守): 상극을 상생으로 풀어야 함을 강조
"진심견수 복선래(眞心堅守福先來)"

결론: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

개념적 의의

- ◆ 초월천과 천지신명 관계의 재정립
- ◆ 자생적 근대성의 다양한 경로 제시
- ◆ 조선 후기 사상과의 연속성과 단절

실천적 의의

- ◆ 동학: 척왜척양 중심의 저항적 근대성
- ◆ 대순: 해원상생 중심의 포용적 근대성
- ◆ 상극과 상생의 균형과 조화 모색

현대적 시사점

- ◆ 동아시아 사상사의 독자적 근대화 가능성
- ◆ 전통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방향성 동서
- ◆ 양 문명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양 사상은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한국 사상사의 독창적 발전 경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